

## 대한통운

'나이키 위 런 서울' 마라톤 대회 물류 전담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은 서울시와 (주)나이키스포츠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위 런 서울 10K' 마라톤 대회 물류를 전담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23일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대한통운은 2.5톤 택배차량 1백여 대를 투입해 3만여 참가자들의 의류와 신발 등 물품을 출발지점에서 골인지점으로 운송했다.

대한통운은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입을 공식 티셔츠와 번호표, 거리측정용 칩 등 경기용품 패키지를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택배로 배송하는 업무도 맡았다.

이번 마라톤 대회 코스는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10km로, 대한통운 택배차량 1백여 대가 출발지인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가 참가자들의 물품을 싣고 골인지점으로 출지어 이동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한통운은 택배 차량 적재함 내부에 참가자들의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프레임을 설치했으며, 사전에 이동 경로를 모의 주행하

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수도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열린 대형 마라톤 대회의 성료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통운은 올해 열렸던 대구육상선수권 대회를 비롯해 과거 올림픽, 월드컵 물류를 전담하는 등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 물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SK해운

VLCC 3척 신조 발주

SK해운(대표 황규호)이 현대중공업에 VLCC 3척을 추가로 신조 발주했다.

최근 발표된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SK해운은 현대중공업에 32만dwt급 VLCC 3척을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선 계약을 체결했다. 척당 선가는 약 1억 달러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말께 현대중공업에 32만dwt급 VLCC 4척을 2012년말께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한 바 있는 SK해운은 이번 추가 발주로 현대중공업에서 총 7척의 VLCC를 새로 건조하게 됐다. 당시 척당 신조선가는 1억 500만 달러로 이번 보다 500만 달러가 더 비쌌다. VLCC 신조선가는 해운조선 초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 1억 55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억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다.

한편 SK해운은 현대중공업에 VLCC 3척을 추가발주하기 이전에 신조중인 VLCC 선대가 8척이라고 밝혀 VLCC 발주잔량은 12척이 됐다. VLCC외에도 SK해운은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9척, 수프라막스 벌크선 7척, VLGC 2척, VLOC 1척 등 총 31척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

## STX팬오션

DJSI 편입 · 최우수 기업 선정



STX팬오션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편입됐다. 신규편입과 동시에 해당 산업분야인 운수분야에서 일등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함께 안았다.

STX팬오션은 10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린 '201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미국 다우존스와 지속가능 경영지수 관리 기업인 스위스 샘(SAM)이 개발한 지수로써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 경영 표준이다. 'DJSI Korea'는 지난 2008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참가해 개발한 것으로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고 산업별 리더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재무적 정보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STX팬오션은 꾸준히 추구해 온 윤리 경영, 혁신 경영, 기술 경영이라는 3대 경영방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DJSI지수에는 STX팬오션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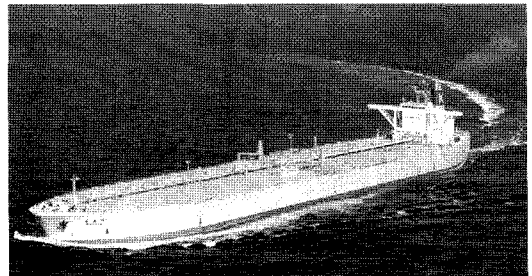
라 STX그룹 내 주요 계열사인 (주)STX, STX조선해양, STX엔진도 DJSI Korea에 포함됐다.

인증식에 참석한 STX팬오션 서충일 부사장은 소감을 통해 "STX팬오션이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금상선

VLCC 1척 취득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중고 초대형유조선(VLCC) 1척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장금상선은 일본 K-Line으로부터 3,200만달러를 주고 30만DWT급 'Mogamigawa'호(2001년산)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지난 2007년 1월 8일 Hormuz해협 남쪽지역을 통과하던중 잠수함과 충돌하면서 발라스트탱커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유명해진 초대형유조선이다.

인수가격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탱커선 대거 처분에 나선 Saga Tankers측이 자사보유 30만 DWT급 자매선인 'Saga Julie' 호와 'Saga Agnes' 호가 3,110만달러에 매각하는 등 초대형유조선선가약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KSS해운

### LPG/암모니아 선박 발주

KSS해운(대표 윤장희)이 장기대선계약에 따른 선박 확보를 위해 3만5,000CBM LPG/암모니아 선박을 발주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번 선박 확보에 대한 투자금액은 596억6,608만 원 상당으로 인도예정일은 2013년 5월 31일이다.

한편 이 선박은 인도와 동시에 MITSUI & Co., Ltd와의 장기대선계약(5년 + Charterer's Option 5년)에 투입될 예정이다.

## 플라리스쉬핑

### 회사채 300억 조달

국내 최대규모의 VLOC선대를 자랑하는 플라리스쉬핑(대표 김완중)이 회사채로 300억원을 조달한다.

한국신용평가는 10월 31일자로 플라리스쉬핑이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제2회 무보증사채 300억 원에 대해 BBB등급에 안정적이라는 평가 의견을 내놨다. 윤민수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플라리스쉬핑이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발레 등 대형 하주들과 장기운송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보수적 선박정책에 따른 양호한 사업안정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어 BBB등급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플라리스쉬핑은 현재 VLOC 사선 9척과 장기용선 3척 등 총 12척의 벌크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포스코와 남동발전, 발레 등과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에 투입하고 있다. 윤 선임연구원은 플라리스쉬핑이 먼저 운송계약을 확보하고 이후 선박을 확보하는 안정적인 사업패턴에 큰 점수를 줬다.

다만 최근 벅커유가 앙등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 대규모 선박 투자에 따른 차입금 증대, 하모니크 루즈 등 계열사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 등 향후 재무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운송계약 위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갖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2009년말에 제1회 무보증사채 30억원을 2012년 12월 28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생한 바 있는 플라리스쉬핑은 지난해 신주인수 권부사채 125억원을 조달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됐다.

## 현대글로벌비스

### 자동차운반선 2척 발주

현대글로벌비스(대표 김경배)가 자동차운반선 2척을 신조 발주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10월 31일 이사회를 열어 완성차 해상운송사업의 영업기반 및 일관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자동차운반선 2척을 신조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글로벌비스가 이번에 신조 발주하는 자동차 전용운반선(PCTC)은 자동차 6500대를 한번에 적재할 수 있는 6500ceu(ceu는 자동차 1대분)급 규모로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인도받는 조건이다. 척당선가는 6700만달러, 총 1억 3400만 달러이며 건조 조선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과 6000ceu급 자동차전용운반선 3척을 총 1억 9150만 달러에 2012년 5월까지 인도받는 조건으로 건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현대상선

'탄소경영 산업리더' 상 수상



현대상선(대표 이석희)이 지난 10월 26일 해운사 최초로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로부터 산업재 운송부문 '탄소경영 산업리더' 상을 수상했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분석하여 금융기관들의 투자결정을 돕는 비영리단체로서, CDP 한국위원회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CDP 한국위원회는 국내 시가총액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경영 현황을 평가해 각 부문별 우수기업을 선정했으며, 26일 흑석동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폴 심슨 CDP 영국 본부 대표,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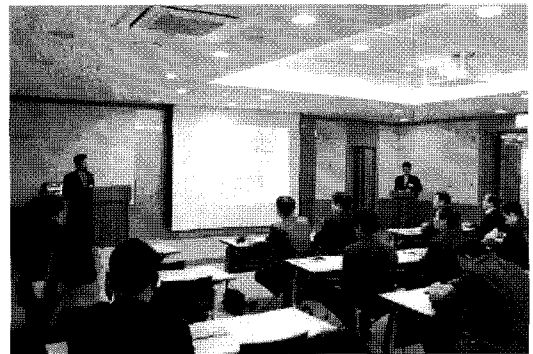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현대상선이 추진해온 다양한 녹색경영 노력들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정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며, "국제 해운업계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선사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6월 덴마크 유수의 해운동향 평가기관 '씨인텔(SeaIntel)'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계 컨테이너 선사 가운데 '세계 3대 친환경선사'로 평가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시행한 지속가능경영(ESG)평가에서 현대상선은 전체 상장기업 중 환경분야 14위, 국내 해운선사 중 1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기업 최고경영자들 평택항에 모였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10월 19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국내 물류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평택항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물류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평택항의 부두시설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등 항만 경쟁력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평택항만공사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물류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평택항의 운영현황과 비전, 배후물류단지 이용에 따른 이익창출,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경쟁력 상승 등 최근 동향을 홍보하고, 평택항 이용에 따른 이점을 적극

소개했다.

서정호 사장은 배후물류단지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자유무역지역인 평택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관세유보 및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며 아울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측면에서 볼 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물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CATL 로지스틱스(주)도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강조하며 물류센터 이용을 통한 장점 등을 설명했다.

CALT로지스틱스(주)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일반물류창고와 자동차 PDI(출고 전 점검, Pre-Delivery Inspection)시설을 합친 복합물류센터로 2000평 규모의 상온창고와 연간 수입자동차 5000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설명회 이후 물류기업 최고경영자들은 배후물류단지와 평택항국제자동차부두(PIRT) 등을 견학보고 항만안내선에 승선해 전반적인 부두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행사에는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 대한통운, 한국도심공항,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중국시장 개척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는 국토해양부, 코트라(KOTRA) 등과 함께 10월 24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둥 샹그릴라호텔에서 100여개의 현지 주요기업 관계자들을 초청, 투자설명회와 개별 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BPA는 부산항의 물동량 현황과 신항 개발 계획, 배후물류단지 제반 여건 등을,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물류 현황과 정책을 참가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또 국내 물류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1:1 상담을 마련, 이들이 신항 배후단지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BPA는 10월 25일에도 칭다오 샹그릴라호텔에서 100여개의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갖고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산둥성(山東省) 르자오(日照)항 유한공사와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BPA는 지난해 산둥성의 칭다오(靑島)와 옌타이(煙臺), 웨이하이(威海), 르자오 등 4개 항만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번 MOU는 이들 4개 항만 가운데 부산항과 정기 항로가 없는 르자오항과 부산항이 함께 선사 마케팅과 상호 지원 방안 등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BPA는 이밖에도 중국 선사인 PO 쉬핑과 코스코(COSCO), 그랜드차이나(Grand China) 등을 방문, 부산항의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북항 신항간 셔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컨' 부두 선석 재배치 완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1번과 2번 2개 선석을 운영하던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주식회사(HSGT)가 2단계 1차 부두 4선석으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HSGT의 선석 운영규모가 2선석에서 4선석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양항 컨부두는 운영사별보다 선석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운영사별 다선석 운영체계 구축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본선 하역 작업과 함께 과다하게 소요되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반·출입을 위한 상하차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측은 전망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HSGT의 선석 운영규모 확대와 함께 컨테이너야드(CY) 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T/C)의 동력을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등 부대시설물 개선사업도 추진해 서비스의 질 제고와 부두 운영경비 절감 및 친환경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HSGT에서도 T/C를 12대에서 17대로 5대 추가 확충했으며 이에 따른 인력도 10여명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보다 향상된 대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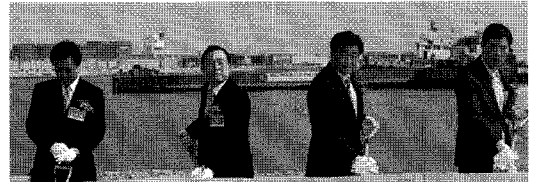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HSGT 이전으로 비어 있는 1단계 부두 1·2번 선석에 대해 '컨'부두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모를 11월 25일 까지 진행한다.

## 울산항만공사

울산신항 남항 1-2단계 2번선석 사업 착공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재익)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신항에 현대오일뱅크에서 총 사업

비 1천억 원을 투입하여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 조성사업인 1-2단계 2번선석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 오일뱅크 울산신항

착공식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을 비롯해 이재익 울산항만공사 사장, 한홍교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조치현 한국항만기술단 사장, 손효원 현대엠코 사장 등 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오일뱅크가 100%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울산신항 유류 저장시설 조성사업은 울산신항 남항 부두 2번선석에 8만6,800m<sup>2</sup>(2만6,000평) 부지를 매립하여,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총 30만kl 규모의 상업용 유류저장 탱크 40개가 건설되고 2013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70만톤 규모의 국내 석유제품 물동량과 일본, 싱가포르 화주의 환적제품 물동량을 유치해 동남권 최대의 석유·석유화학제품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주의 위탁 제품을 해외 및 국내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레이딩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해운거점 기지의 특성을 살린 병커링,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브랜딩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UPA는 2020년까지 울산신항에 액체부두 13개 선석을 추가 개발하여 액체물동량의 유치와 배후의 석유화학단지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총 2억5,0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동북아 액체물류허브항의 입지를 다지는 기반이 될 것이며, 항만산업의 활성화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UPA는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미사리경기장서 '제1회 조정스쿨' 개최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는 10월 23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제1회 조정스쿨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회 조정스쿨'에는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대한 조정협회 장대갑 부회장, 김민수 인천시체육회 조정감독, 김기홍 인천항만공사 조정감독 등 인천항만가족과 다문화가정 약1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팀에 따르면,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이번행사는 인천항만 가족은 물론 최근 급격히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인천항만공사 조정선수와 함께 하는 시간이다.

이날 참석에 앞서 인천항만공사 김대길씨와 윙티빗하이씨가(다문화가정 행복부부 대표) 대표자 선서를 했으며, 조정경기에 앞서 에르고미터 체험, 실지 조정체험을 했다.

또한 페이스페인팅, 아동용 에어바운스 놀이터를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다문화체험 부스를 만들어 타국의 문화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은 “조정이라는 종목이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운동이다”며, “조정을 통해 인천항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가족사랑, 그리고 협동심을 배우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선급

한국조선협회 선급평가 1위 달성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세계 유수의 선급들을 제치고 2011년 한국조선협회가 실시한 선급평가에서 최우수 선급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형 조선 9개사가 참여해 ■ 선박설계 조연능력(Assistance for design engineering) ■ 선박 건조 업무협조성(Cooperation for production) ■ 현장검사원 자질(Ability of field surveyor) ■ 선급검사료(Fee of classification society)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선급을 비롯하여 미국선급, 프랑스선급, 노르웨이선급, 일본선급, 독일선급, 이탈리아선급, 영국선급 등 세계 초일류 8개 선급 중 최우수 선급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선급은 도면검토능력(1위), 현장검사원 자질(2위) 선급검사료(2위) 등 대부분의 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영국선급, 미국선급 등을 제치고 전체 종합 선급능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선급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해사업계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급이 고객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창구로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최상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 선급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전용조사선 건조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인섭)은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상태와 오염원 조사에 활용될 해양환경전용조사선(60t급) 1척 국내 최초로 건조한다.



정부로부터 60억 원을 지원받아 2012년 건조 예정인 해양환경전용조사선은 전처리 장치를 구비해 안정적인 방법으로 청정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일반어선을 통한 시료채취과정 중 발생했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조사선 내 현장실험이 가능하도록 시공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외 전용조사선의 운용 현황을 파악해 올해 중 조사선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전용조사선을 건조해 선진국 수준의 해양환경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양환경 전용 조사선 2척을 추가 확보해 전국 연안 및 근해의 정밀한 해양환경 측정과 해양생태계 조사에 이용할 것이며, 관련대학과의 연구개발(R&D)에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전용조사선을 통한 청정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국가 해양환경 자료의 신뢰성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해양환경전용조사선 건조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을 강구해 보다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해운조합

KSA Hull · P&I 워크숍 개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지난 10월 26일~27일 까지 양일간 KSA Hull · P&I Workshop을 개최해 'KSA2020 비전 달성 및 2012년도 사업계획 달성 전략'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Workshop에서는 ▲ 해상보험시장 동향 및 KSA Hull · P&I발전방향 ▲ 지부 현안사항 및 2012년도 사업계획 목표달성 전략 ▲ 석유류

공급 확대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KSA Hull · P&I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공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직원공감대를 형성하여 조합 KSA 2020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해운조합은 이번 Workshop을 통해 2012년도 사업계획 목표인 700억 달성 전략을 마련함은 물론 조합 KSA Hull · P&I의 시장내 재 포지셔닝 검토, 사고 발생시 해당 지부직원의 파견 등 클레임 서비스 강화, 경쟁력 있는 요율 구축 및 할인 제도 검토, 서울 선사 밀집지역에 영업팀 설치 및 운영 검토, 지부별 선사 담당자 교육 운영 검토 등 KSA 2020 비전달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이인수 이사장은 "이번 Workshop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조합 공제사업의 외형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으로 KSA Hull · P&I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해상보험 상품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대 출신 CEO들, 후배들에 장학금 전달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10월 26일 오후 6시 교내 후생복지관 5층에서 '재경동문CEO



장학회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재정동문CEO장학회(추진위원장 이경제)가 전한 금액은 4,000만 원으로 가정형편과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해 선발된 한국해양대생 8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이후 매학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재정동문CEO장학회가 모교에 전달한 금액은 총 6억 4,250만원에 이른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경제 추진위원장은 “지난날 모교로부터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학금 지급을 통해 되돌려주고 있다”며 “꿈과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후배들이 해양 산업계의 동량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강서 해양레포츠퉈축제 개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은 지난 10월 9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수상택시장)에서 해양소년단 단원은 물론 청소년과 일반인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강 해양레포츠퉈 축제를 실시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수상퍼레이드에는 요트(옵티미스트 95척, 피코 20척, 크루즈요트 24척) 139척, 카약 70척, 윈드서핑 20척, 안전선 12척이 동원되어 여의도 일대 한강을 형형색색 수놓으며 환상적인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이 날은 퍼레이드 뿐만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해양소년단 단원과 청소년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크루즈요트, 덩기요트, 카약의 무료 체험이 가능한 해양레포츠퉈 체험 활동이 함께 실시됐다.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황규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직원 및

해양소년단 임원은 카약을 직접 시승함으로써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소년단 단원과 일반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한강 해양레포츠퉈 축제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해양경찰청에서 후원했다.

## 한국해양연수원

소아암 환자에게 '사랑나눔 헌혈기증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강신길)은 10월 20일 소아암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사랑나눔 헌혈기증식'을 가졌다.

'사랑나눔 헌혈기증식'은 최근 혈액보유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연수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헌혈 증서 500장을 기부하였으며, 모아진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부산 사랑의 집)에 기증되었다.

연수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과 헌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